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중소기업, 행복나눔 전도사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

처음에는 가족끼리 작은 실천을 했다. 그 기쁨은 컸다. 누군가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회사로, 그가 속한 집단으로 나눔이 점차 커져갔다. 최전남 남성기전(주) 대표(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감사) 이야기다. 최전남 대표의 꾸준한 나눔활동은 한 사람의 배려(날개짓)가 여러 불우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나비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따뜻하고 착한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에는 이만한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남에게 배풂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다는 '행복나눔 전도사' 최전남 대표를 만났다.[편집자 주]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시절부터 봉사활동 펼쳐

최전남 대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던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섰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건은 당시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 최전남 대표는 2008년 위원장이 되자마자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충남 태안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그 당시 최전남 위원장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 지역은 아직도 많은 어민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협의회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 태안지역의 고통분담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로하고자 봉사활동을 하게됐다"고 봉사활동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나눔경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최전남 대표의 나눔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조합원사 유대 강화

최전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도 나눔경영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사장에 취임한 후 7년째 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 이사장은 조합경영의 키워드로 '조합원사의 먹거리 창출과 업역확대 및 회원사 간의 활발한 교류,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형편이 어려운 조합원사 임직원 자녀를 위해서도 장학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실천으로 이어져 지난 2013년부터 조합에서 자동제어장학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합의 윤리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맞춰 지역별로 총 10명의 조합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이처럼 활발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까닭은 "나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말한다.

연말이 되면 최 이사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청량리에 있는 다일복지재단으로 걸음을 옮긴다. 밥퍼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부지런히 700인분의 밥과 반찬을 만들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다. 몇시간 동안 쉼없이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다 보면 손목이 아프기도 하지만 맛있게 식사하는 노숙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픔은 금세 잊힌다. 봉사하는 날은 쌀과 반찬재료 비용까지 조합에서 후원한다.

조합에서 펼치는 사회공헌활동은 이 뿐 아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겨울이면 방한 외투를 구입해 영등포공원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1996년 창립해 빌딩 자동제어,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자동제어, 송변전 전력제어 및 철도 신호제어 등을 본업으로 하는 260개 조합원사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동제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사의 수월한 관수시장 진입과 이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 · 공공기관 관련 발주정보, 업체 동향과 조합원 실태, 판매 현황 등을 조합원사에 수시로 제공한다. 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기술을 연구 · 개발해 그 수준을 높이고 이를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

최전남 이사장은 조합원사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눠 정기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에서 조합원사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운영에 반영한다. 다양한 취미활동 분과(등산회, 골프회, 낚시회)를 만들어 조합원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서로의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고 있다.

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한다.

최 이사장은 조합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했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다 보면 조합원들 간의 유대관계는 더욱 끈끈해 집니다. 나누는 기쁨이 서로를 단합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보다 나눔은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중소기업'이란 이미지가 사회에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기대

최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간담회와 위원회에 나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중소기업들 간의 소통과 단합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활동에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

"20여 조합 이사들이 매달 5만원 씩 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보다는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눔도 습관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해 본 이들만이 계속 나눔을 실천합니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나눔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관심과 애정을 실천하는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최 이사장의 바람은 얼마 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의 이사 선임으로 이루어졌다. 최 이사장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단 사업을 잘 이어나가는 한편 앞으로 조금씩 사업분야를 넓혀가며 국민들에게 따뜻하고 착한 중소기업으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재단에서 펼치는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① 2008년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시절 태안 봉사활동(2008.6.10)
②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함께 긴급지역 복지지원(2015.7.24.)
③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와 함께 다일복지재단 밥퍼나눔운동 봉사활동(2014. 12.)